

Current Status of South Africa's Environmentally Friendly Packaging Industry

남아공 친환경 포장재산업 현황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서론

아프리카는 2025년까지 1인당 비닐 봉투 사용량을 연간 40봉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보다 더 앞선 정책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간다, 소말리아, 르완다, 탄자니아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2003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 중이다.

일부 국가는 비닐봉지 생산 및 사용 전면 금지 등 플라스틱과 전쟁 중이다.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는 비닐봉지 생산, 사용,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 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없는 대륙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장려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비용 절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수요와 포장재 제조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 남아공 친환경 포장산업 현황

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환경 트렌드에 부응해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면서 남아공 환경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또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할 경우 대체품을 위해 모든 측면을 수량화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포장 제조업체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에 따라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는 재활용 패키징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대하고 있다. 현재 제안된 탄소세 정책에 따르면 최저 배출 허용치는 60%이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 1톤마다 120랜드(한화로 만원 수준)가 부과된다.

Euromonitor 전문가들은 향후 소비자들 역시 탄소 배출량이 적게 제조된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주요 슈퍼마켓, 식당, 식음료 제조업체들도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이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대신 종이 빨대를 공급하고 있다.

대형유통망들 역시 플라스틱 비닐 봉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장바구니를 준비하세요(Bring Your Own Bag)’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비닐 봉투 무료 배포를 중단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장바구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직원들을 교육하여 소비자들이 무심코 비닐봉지를 구매하기보다 장바구니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대형유통망 Pick n Pay에서는 브랜드 로고 PnP에서 착안해 사람과 환경 (People n Planet) 로

[사진 1] 대형 유통망들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캠페인



대형유통망 Spar에서 진행한 캠페인 포스터(좌), 대형유통망 PnP의 플라스틱 재활용 가방(우)

[자료 : Spar, PnP 홈페이지]

[사진 2] 최근 남아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 대체품



마트 내 구비된 종이봉투(좌), 택배상자의 종이테이프(중), 친환경 용기(우)

[자료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직접 촬영, Enviromall]

고로 플라스틱 재활용 가방을 5랜드에 판매 중이다. 또한 날개로 판매하는 채소·과일 포장에 위해 구비해놓은 비닐 봉투를 없애고 종이봉투를 구비해놓았다.

이제는 비닐봉지나 빨대뿐만 아니라 각종 포장재, 식품 용기 등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아공 최대 온라인 쇼핑몰 Takealot은 택배상자 포장에 기존 테이프가 아닌 종이테이프를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식당에서도 남은 음식 포장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용기 대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친환경 트렌드는 화장품과 같은 뷰티 및 개인 관리 용품 부문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 천연 재료 화장품 브랜드 Lush나 Rain Africa에서는 비누나 입욕제(Bath-bombs)와 같은 제품을 포장재 없이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MAC에서도 소비자가 동사 제품의 빈 용기를 가져오면 무료 립스틱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현지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빈 병을 가져오면 리필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uromonitor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서비스는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도 어필하지만 제품을 차별화 하고 브랜드의 프리미엄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Ⅲ. 남아공 친환경 포장재 판매 동향

많은 현지 기업들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품 포장 용기·컵·빨대·수저 등의 다양한 제품을

[사진 3] 판매 제품 예시



(자료 : 현지 업체 G사, S사 웹사이트)

사탕수수, 옥수수전분, 목재섬유, 목재 등으로 제조해 판매 중이다.

샐러드 포장용기나 테이크아웃 컵과 같은 투명용기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PET)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PLA)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특히 수요가 높은 테이크아웃 컵은 여러 업체를 확인한 결과 수량이 부족한 것(재고 없음)으로 나타났다.

식품 포장용기의 경우, 850ml부터 1,200ml까지 사이즈가 사용되고 있고, 50개 기준 100랜드에서 200랜드(한화로 약 8,000원~16,000원 정도)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과자나 시리얼 포장용으로 쓰이는 친환경 종이봉투를 제조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개당 3~5랜드(한화로 200원~400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 일반 포장재보다 비싼 편이다.

대형유통망 Woolworths Sandton 지

점 매니저는 많은 소비자들의 일회용 비닐봉지 구매율이 최근 많이 낮아졌으며 장바구니를 가져오거나 매장 내 판매되고 있는 재활용 가방을 구매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일부 Woolworths 매장에서는 계산 시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용 부직포 가방을 5랜드에 구매할지 먼저 고객에게 물어보고 권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남아공 소비자협회에 문의한 결과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 소비자들의 75%가 일회

[표 1] 남아공에서 열리는 포장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Fespa Africa	2020년 9월 9~11일	Gallagher Convention Centre(요하네스버그)
Propak Cape	2020년 10월 20~22일	CTICC(케이프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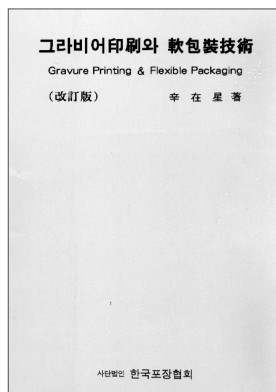
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더욱이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 중 84%가 친환경 제품 브랜드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67%가 환경을 위해 포장재를 적게 사용하는 곳에서 쇼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국은 49%에 불과하며, 남아공이 조사대상국 28개국 기준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IV. 결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는 지역 기업과 소비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물 분해 및 퇴비가 가능한 친환경 대체품은 현재 생산 및 구매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대체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비닐 재질 에어캡 완충재 대체품인 종이 완충재(버블페이퍼),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완충재 및 장난감, 종이테이프 혹은 테이프가 필요 없는 날개형 무접착 택배 박스, 코팅 되지 않아 재생 가능한 종이 단상자 등 남아공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제품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최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은 “포장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한 시스템 및 제품으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필요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며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면 경쟁업체들의 제품들을 직접 보고 가격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바이어와 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적 안내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

우리나라 연포장 인쇄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증보·보완되어 출간된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에는 포장의 개요, 그라비아인쇄, 제판, 그라비아인쇄설기, 그라비아잉크, 포장재료 등 그라비아인쇄관련기술과 문제해결책, 재료관계 등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5,000원
 · 구입 문의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